



학회소식

대한산부인과학회 제 98차 학술대회 개최

- 10월5일~6일, 이틀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려
- 제 17차 서울국제심포지움은 10월4일(목)에 진행

제 98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가 10월5일-10월6일(금-토)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홍은동 소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행사기간 중인 10월6일(토)에는 대의원총회 자리에서 학회 명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제17차 서울국제심포지움도 10월4일(목)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최근 계속되는 산부인과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진료와 연구는 물론 진료의 질과 환경 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서두에서 언급하고 “이번 학술대회는 4개 세부 분야의 교육 강연은 물론 외국의 석학들을 초빙하여 변화하는 학문의 세계적인 경향과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과 초음파의 대가 Philippe Jeanty (USA, Inner Vision Women's Ultrasound)와 부인종양 연구분야의 석학인 Robert S. Mannel 교수(USA, Univ of Oklahoma))의 강연이 마련되었으며, 이밖에도 외국 초청 연사로는 Yoshiki Kudo 교수(Japan, Hiroshima Univ), Aikou Okamoto 교수(Japan, Jikei Univ), Meeta Singh (India, Tanvir Hospital), Edith Weisberg (Australia, Sydney Centre for Reproductive Health Research), Ryo Konno 교수(Japan, Jichi Medical Univ) 등으로, 학술대회와 서울 국제심포지움에 참가해 강연을 하였다.

학술대회 중에는 부인종양학, 일반부인과학 등 4개 세부분야 강연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연구 심포지움도 10월5일(금) 함께 열렸다. 국내 외 여성건강연구(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한국 여성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방안(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연을 비롯 여성 건강과 간호사 건강 연구, 모성건강 등을 주제로 한 세션도 진행되었다.

10/6(토) 개최된 제 66차 대의원 총회에서는 지난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퇴임식과 신임 회장과 부회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신임 회장으로 김재욱 교수(관동의대), 부회장에는 장상식 원장(한나산부인과), 강미자 원장(강미자산부인과)이 취임하였으며, 차기 회장으로 계명의대 윤성도 석좌교수가 선출되었다.

학술대회 개회식과 함께 대한산부인과학회 명예회원 추대식, 공로패 증정식도 거행되었으며 또한 매년 학술대회 기간 중에 진행되는 최우수논문상과 좋은문화상, 학술상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 98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시상내역

❖ 최우수논문상

ACCUVIX 상 [모체태아의학]	오민정(고려의대)	Postpartum changes in body composition	Obesity
Bayer HealthCare상 [생식내분비학]	김진주(서울의대), 채수진(마리아병원)	Assessment of hirsutism among Korean women: results of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women seeking pre-employment physical check-up	Human Reproduction
한국여성암연구재단상 [부인종양학]	박정열(울산의대)	Outcomes after radical hysterectomy according to tumor size divided by 2-cm interval in patients with early cervical cancer	Annals of Oncology
글락소스미스클라린상 [일반부인과학]	이유경(서울의대)	Vaginal pH-Balanced Gel for the Control of Atrophic Vaginitis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bstetrics and Gynecology

❖ 좋은문화상

산 과 학	이준호(서울의대)
부 인 과 학	강석범(국립암센터)

❖ 학술상

모체태아의학	조아라(이화의대)	Concentration of cord serum adiponectin in normal and gestational diabetic pregnancies
생식내분비학	정현경(이화의대)	Expression of Membrane Type-2 and -3 Matrix Metalloproteinases in Endometrium of Women with Advanced Endometriosis
부인종양학	김수미(가톨릭의대)	The prognostic significance of P16, KI-67, P63, and CK17 expression determined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in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1
일반부인과학	박수연(연세의대)	Predicting risk factors of postoperative voiding dysfunction after abdominal sacrocolpopexy in the treatment of pelvic organ prolapse

명예회원 추대식

❖ Yu-Shih Yang 교수(Taiwan, National Taiwa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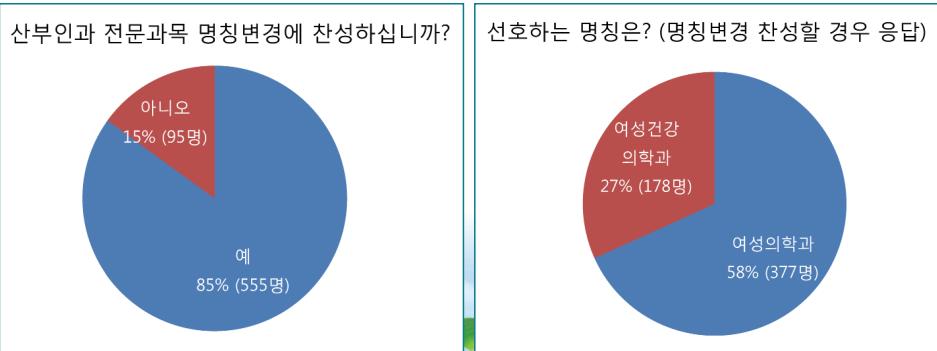
산부인과학회, 전문과목 '여성의학과'로 변경 추진

- 10월6일 대의원총회에서 명칭 변경 추진 결정
- 사전 설문조사 결과 '85% 명칭 변경 찬성' '여성의학과가 적당'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전문과목 명칭 변경 건과 관련해 학술대회 기간 중인 10월6일(토)에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개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산부인과라는 명칭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임신과 출산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부인과 영역의 진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미혼 여성의 진료에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갖는 부담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15일~29일까지 실시한 '전문과목 명칭과 관련한 설문조사' 설문조사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650명이 응답했으며 이중 85%가 '명칭 변경에 찬성' 했고, 선호하는 명칭으로는 과반수 이상인 58%가 '여성의학과'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아래 설문조사 내용 참조)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여성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접종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0월20일 오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강당에서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회 산하 여성건강미래위원회 첫 사업으로 구로구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공개 건강강좌도 실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여성건강미래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여성암에 대한 건강정보와 질병예방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 여성건강미래위원장 이재관 교수 외에 이성구 구로구청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 김우경 고대구로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제 9차 심사위원회

일시: 2012. 10.15(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사안 심사

제 10차 개원특임위원회

일시: 2012. 10.15(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팔래스 호텔 12층

안건: 산부인과 현안에 관한 토의

제 2차 정책위원회

일시: 2012. 10.18(목)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학생들의 분만 참여에 대한 토의

제 12차 법제위원회

일시: 2012. 10.22(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추계학술대회 법제위원회 주관「의료법세션」에 대한 논의 외

제 13차 의료분쟁조정법 TFT

일시: 2012. 10.24(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국회정책토론회 준비

제 3차 편집위원회

일시: 2012. 11. 5(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영문학술지 통합발행의 건

제 1차 학술TFT

일시: 2012. 11. 6(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제48차 전공의 연수강좌 프로그램 외

보험소식

1. 분만병의원들의 정책 개선 요청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기준 병상비율 조정 검토'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가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병원기반 연구팀에서 시작되었다. 관련 정책 연구는 전국 10건 이상 분만 의료기관중 168개 기관을 표본 추출하여 병상수 조사 및 산모 설문조사를 진행 (2012. 11 초순)하였고 산부인과학회는 조사 진행에 협조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만병의원 50% 기준병상을 완화'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주 받은 '국제 분류 호환을 위한 한국형의료행위 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 중 '행위재분류 작업'이 11월 7일 대한의사협회 전체 회의로 시작되었다. 이는 상대가치 전면개정 2차작업의 마지막 일정으로 산부인과학회의 보험위원들은 2011년부터 준비하였던 작업이며 대한의사협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및 치료재료기준부 등의 검토요청에 따라 피임용난관폐색코일 ESSURE, 자궁근종적출술 시 필요한 MORCELLEX, 골반용 메쉬 GYNECARE, SERATOME, 복강경시술 재료인 VERSPOINT 등에 대하여 임상적 유용성, 타 유사 행위 및 치료재료와 비교, 예상 시술건수, 급여 및 비급여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행사소식

제48차 전공의 연수강좌

일시: 2012년 12월 16일 일요일

장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의학관 2층 유광사홀

대한산부인과학회 유방연구회 심화과정 7기

장소: 강남 교보타워 A동 5층 노블리에홀

1차는 11월 24일(토)

2차는 11월 25일(일)

3차는 12월 16일(일)

* 대한산부인과학회 홈페이지(<http://www.ksog.org>) 공지사항 참조

회원여러분의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뉴스레터에 게재되어 회원들이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현 의료계, 또는 산부인과 실정에 관한 의견

■ 형식: 형식, 분량에 대한 제한 없음

■ 기한: 매월 5일 마감

■ 문의사항 및 보내실 곳: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국

Fax: 02-3445-2440 Tel: 02-3445-2262

E-mail: office@ksog.org